

松江歌辭

全

0236

1



77 45



關東東洞別曲



江<sub>강</sub>湖<sub>호</sub>호에病<sub>병</sub>병이<sub>기</sub>기<sub>피</sub>피<sub>죽</sub>죽<sub>림</sub>림<sub>님</sub>님의<sub>뉴</sub>뉴<sub>엇</sub>엇<sub>더</sub>더<sub>나</sub>나<sub>關</sub>關<sub>東</sub>東<sub>洞</sub>洞<sub>別</sub>別<sub>曲</sub>曲<sub>矣</sub>矣  
百<sub>백</sub>백<sub>익</sub>익<sub>로</sub>로<sub>니</sub>니<sub>에</sub>에<sub>方</sub>方<sub>面</sub>面<sub>연</sub>연<sub>을</sub>을<sub>맛</sub>맛<sub>다</sub>다<sub>시</sub>시<sub>니</sub>니<sub>어</sub>어<sub>와</sub>와<sub>聖</sub>聖<sub>恩</sub>恩<sub>인</sub>인<sub>이</sub>이<sub>후</sub>후<sub>가</sub>가<sub>대</sub>대<sub>로</sub>로<sub>岡</sub>岡<sub>極</sub>極<sub>극</sub>극<sub>하</sub>하<sub>다</sub>다<sub>延</sub>延<sub>연</sub>연<sub>秋</sub>秋<sub>秋</sub>秋<sub>門</sub>門<sub>문</sub>문<sub>드</sub>드<sub>리</sub>리<sub>라</sub>라  
慶<sub>경</sub>慶<sub>會</sub>會<sub>南</sub>南<sub>南</sub>南<sub>門</sub>門<sub>문</sub>문<sub>보</sub>보<sub>여</sub>여<sub>下</sub>下<sub>하</sub>하<sub>直</sub>直<sub>직</sub>직<sub>덕</sub>덕<sub>고</sub>고<sub>을</sub>을<sub>너</sub>너<sub>나</sub>나<sub>오</sub>오  
옥<sub>옥</sub>옥<sub>鄉</sub>鄉<sub>결</sub>결<sub>이</sub>이<sub>알</sub>알<sub>려</sub>려<sub>섯</sub>섯<sub>다</sub>다<sub>平</sub>平<sub>평</sub>평<sub>요</sub>요<sub>구</sub>구<sub>驛</sub>驛<sub>역</sub>역<sub>물</sub>물<sub>을</sub>을<sub>마</sub>마<sub>라</sub>라<sub>黑</sub>黑<sub>흑</sub>흑<sub>水</sub>水<sub>슈</sub>슈<sub>로</sub>로<sub>도</sub>도<sub>라</sub>라<sub>드</sub>드<sub>니</sub>니<sub>塘</sub>塘<sub>담</sub>담<sub>江</sub>江<sub>강</sub>강<sub>은</sub>은<sub>어</sub>어<sub>의</sub>의<sub>어</sub>어<sub>오</sub>오<sub>繼</sub>繼<sub>티</sub>티<sub>岳</sub>岳<sub>악</sub>악<sub>이</sub>이<sub>여</sub>여<sub>거</sub>거<sub>로</sub>로  
다<sub>昭</sub>昭<sub>요</sub>요<sub>陽</sub>陽<sub>양</sub>양<sub>江</sub>江<sub>강</sub>강<sub>느</sub>느<sub>린</sub>린<sub>클</sub>클<sub>어</sub>어<sub>어</sub>어<sub>프</sub>프<sub>려</sub>려<sub>로</sub>로<sub>든</sub>든<sub>단</sub>단<sub>말</sub>말<sub>고</sub>고<sub>孤</sub>孤<sub>고</sub>고<sub>고</sub>고<sub>고</sub>고  
신<sub>去</sub>去<sub>거</sub>거<sub>國</sub>國<sub>국</sub>국<sub>에</sub>에<sub>白</sub>白<sub>백</sub>백<sub>髮</sub>髮<sub>발</sub>발<sub>도</sub>도<sub>하</sub>하<sub>도</sub>도<sub>할</sub>할<sub>샤</sub>샤<sub>東</sub>東<sub>동</sub>동<sub>州</sub>州<sub>취</sub>취<sub>밤</sub>밤<sub>제</sub>제<sub>오</sub>오  
새<sub>와</sub>와<sub>北</sub>北<sub>북</sub>북<sub>寬</sub>寬<sub>관</sub>관<sub>亭</sub>亭<sub>영</sub>영<sub>의</sub>의<sub>을</sub>을<sub>나</sub>나<sub>하</sub>하<sub>니</sub>니<sub>三</sub>三<sub>삼</sub>삼<sub>角</sub>角<sub>각</sub>각<sub>山</sub>山<sub>산</sub>산<sub>第</sub>第<sub>예</sub>예<sub>一</sub>一

일峯봉이흐아면비리로다  
고종王大闢할터히  
오鵲작이지지피니  
千천古고興흥亡망을아느다  
물은  
느다淮회陽양테일흠이아초아  
마들사고汲급長長  
유風풍彩彩치를고터아나  
물게이고營營中中들이無무事  
소고고時시節절이두삼  
月월인제花화川川  
楓풍岳岳약으로버터있다  
行행裝裝장을다털티고  
石석  
경의막대다피百百  
川川천洞동겨터두고  
萬萬만瀑瀑洞동  
드러가나銀은  
마튼무자계玉옥  
마튼龍龍의초리섯들  
어생는소리  
十십里리의즈자  
시니들을세느우려  
러니  
보니는눈어로도  
金金剛강臺臺  
단우屬屬  
홍의仙仙鶴鶴학



劫김디나드록구필줄모르는다어와더어인고며고르  
너노잇느가開리心심臺타고터올나衆香香城성부  
라보며萬만二이千천峯봉을歷歷歷부히혀여흐니峯  
봉아다잇혀잇고곳아다서린괴운몹거든조티아나조  
거든몹디마나더괴운흐터네야人인儼然을문돌고자  
形容容용도그지업고體體勢세도하도할샤天천地地  
삼기실리自自然연이되연아느이귀와보게되니有유  
情情도有유情情할샤毗비盧로峯봉上上上上頭두의  
올라보니괴귀실고東동山山泰태山산이여느야홀듯  
던고魯魯國國조분줄도우리느모르거든법기나법은



여실기티플터아셔빙기티가라사니圖도經경열두구  
비비보애는여러히작李나謫덕仙선이제이셔고터의  
논흔게되면廬며山산이여기도근낫단말무하려니山  
산中등을미양보라東동海히로가자스라監官與여綾  
완步보호야山山映영樓누의올나하니玲瓏농碧벽  
溪계와數수聲聲啼리鳥도느離니취별을怨원하느듯  
旌정旗기를떨티니五오色색이넘노느듯鼓고角각을  
섯부니海히雲운이다깃느듯鳴명沙스길니근물이醉  
취仙선을빚기사러바다흔크티두고海히棠당花화르  
드러가니白백鷗구야느다아라네버딘줄엇디아는金



금欄난窟굴도라드러叢叢石硯亭령을라하니白翎주  
음棲누남은기동다안테히쳐잇고야그공倭슈의성녕  
인가鬼키斧부로다드문가구트야六卮面연은모어슬  
象상톳던고高고城성은란터만두고삼日일浦포로  
태자가니丹단書서는宛宛然연호되四人仙선은어디  
가니에사홀어문後후의어디가佐어물고仙선遊유潭  
담永영郎랑湖호거기나가잇는가淸淸澗간후령萬만  
물경홀디멧고디안듯던고梨니花화는발쳐디고점동  
새슬되을재洛낙山산東동畔畔으로義의相상홀디예  
을라안자日일出출을보리라望동안나러하니祥雲雲

운이 집피는 동육룡이 바티는 동바다히 천년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나 천년中등의 티드나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야도 별구룡근척의 어물세라 詩사仙선은  
어뒤가고 咳히 啞타안나맛는나 천년地地間간壯장훈  
괴별저서히도 吼서이고 斜야陽양峴현山산의 躑躅躑  
득을으니 불와 羽우蓋개 笠지輪륜이 鏡경浦포로고려  
가니 십십리氷빙 統統한을다리고고려다려 長長당松송  
을 吼소기슬크장퍼터시니 물결도자도 잘샤모래를헤  
리로다 孤고舟舟解解纜纜함야후형부우히을나가  
니 江江門문橋교너문거터 太대洋양이거괴로다 從從宗



주려卍단穴혈의어므살가天련根근을못너보와함양  
洋양후영의을은말이바다맛근하늘이나하늘맛근므  
서신고又득노훈고래휘라셔놀버판의볼거니쌍거니  
어즈러이구논지고銀은山산을것거버여六축승합의  
누리논듯五오月월長장天련의白백雪설은므스일고  
저근덧밤이드러風풍浪浪이定定항거늘扶부桑상려  
지尺척의明明月월을기느리너瑞셔光광千천丈丈이  
비논듯숨논고야珠珠帘帘을고터것고玉옥階階를다  
시솔여啓啓明明星성듯도록곳초안자년라보니白백  
蓮蓮花화호가지를휘라셔보너신고일이도흔세세界

계능대되다 외고져 流 누霞 하酒 주 마 득 부어 들 드 겨 무  
론말이 英영 雄웅 은 어 더 가 여 四 소 仙 선 은 기 휘 러 너 아  
러 나 안 나 보 아 넷 기 별 못 자 하 니 仙 선 山 산 東 동 海 히 예  
갈 길 히 어 도 알 샤 松 송 根 근 을 베 여 누 어 꾀 즘 을 알 꾀 드  
니 삼 애 훈 사 롬 이 날 드 려 날 은 말 이 그 더 를 너 모 르 라 소  
상 孫 세 예 真 진 仙 선 이 라 黃 황 庭庭 經 경 一 일 宇 우 를 엇  
디 그 로 트 날 거 두 고 소 인 간 간 의 배 터 와 셔 우 리 를 살 오 는  
다 저 근 덧 가 지 아 오 이 술 호 은 잔 먹 어 보 오 北 북 斗 두 星 성  
기 우 려 滄 창 海 히 水 수 부 어 버 여 저 먹 고 날 어 떠 들 서 너  
잔 거 후 로 니 和 화 風 풍 이習 습 習 습 흥 흥 여 兩 양 腋 익 을 추

허드니九千萬만리니長空공애져가연느리로다이  
슬가져다가四小海히에고로노화億억萬만蒼蒼生  
을라醉취케링근後후의그제야고터맛나도호관호젓  
고야말디자鶴학을두고九千空공의을나간니空公中  
풍玉옥簫소소리어찌런가그찌런가나도음을씨여바  
다홀구버보니기피를모르거나마인들엇디알니明영  
月월이千천山山萬만落낙의아니비천의업다

贈贈關關東東按按安安使使尹尹肅肅仲仲肅肅素素履履之之

關關東東歌歌曲曲最最清淸新新樂樂府府流流傳傳  
聞聞五五十年年春春文文采采風風流流今今寂寂寞寞

世間誰見謫仙仙人

右우는 淸淸陰음 金金先先 空空尚尙 憲憲 韓韓 글이

라

贈贈 楊楊 理理 一 一 日 日

楊楊 也 也 亦 亦 善 善 唱 唱 聲 聲 關 關 東 東 曲 曲

別 別 曲 曲 乎 乎

我아 逐逐 壽壽 浮浮 名名 落落 半半 世世 間間 仙仙 壇壇 壇壇 有有 有有 約約  
의 幾幾 時時 還還 逢逢 君君 正正 聽聽 聲聲 唱唱 關關 關關 東東 曲曲 乎  
領領 略略 半半 金金 剛剛 萬萬 年年 疊疊 山山 山山

右우는 石石 州州 旣旣 權權 公公 鞞鞞 謁謁 글이 라

李李 芝芝 峯峯 醉醉 光光 堂堂 論論 東東 方方 歌歌 曲曲 曰曰 退退 溪溪 歌歌 南南 冥冥 歌歌

宋判樞純僥仰亭歌白評事光弘閣西別曲鄭  
松江澈關東別曲思義人曲續義人曲將進酒  
詞盛行於世而我國歌詞雜以方言故不能與  
中國樂府比並如近世宋公鄭公所作家善而  
不過膾炙口頭而止惜哉

思人義人인곡곡

이몸삼기실제님을조차삼가시니 호심緣연分分이며  
하늘모를일이런가나흐나점어잇고님흐나날피시니  
이몸이 사랑견줄티노여업다평평초생애願원호요  
티호티베자호앗더니하거야므스일로외오두고그리





昏혼의 돌이 조차며 마티 빛 최니 늦기 늦듯만 가느듯  
이 신가 아니 신가 더 梅의 花 화 것 거 내여 넘겨 신티 부너  
오려 남이 너를 보고 었더 타 너기 실고 썼다 고 새 남 나니  
綠 竹 陰 음 이 션 렸 는 더 羅 나 幃 위 寂 적 冥 막 하 고 繡 巾 幕  
막 이 뷔 여 잇 다 美 부 容 용 을 거 더 노 코 孔 공 雀 작 을 들 러  
두 니 又 두 시 롬 한 더 날 은 었 더 기 듯 더 고 楊 柳 楊 양 錦 금  
버 혀 노 코 오 색 식 綠 絨 른 물 더 내 여 금 자 히 견 화 이 셔 남  
의 옷 지 어 내 니 手 巾 巾 품 은 쿠 니 와 制 禮 度 도 도 마 즐 시  
고 珊 山 瑚 호 樹 슈 지 게 우 히 白 帛 玉 옥 函 함 의 다 막 두 고  
남 의 게 보 내 오 려 남 거 신 티 보 라 보 니 山 山 인 가 구 롬 인

가어흐도어홀시고千천리나萬만리나길히누라셔차  
자갈고너거든여러두고날인가반기실가흐르삼서리  
김의기러기우러별저危위樓루에혼자온다水슈晶정  
簾蓆을거든말리東동山산의돈이나고北북極극의별  
이되니님인가반기니눈물이설로난다淸淸光광을의  
위내여鳳봉凰황樓樓의북리고져樓樓우히거러두고  
八팔荒荒의다비최어深심山산窮窮궁곡목을낮긔리랑  
그쇼셔乾乾坤坤이閉폐塞塞석하야白백雪雪설이흔비친  
제사름은쿠니와늘새로긔쳐잇다滿滿尙尙湘湘南남畔畔  
도치오미이러긔거든玉옥樓樓우高고處處야덕옥닐너무

심호리陽明春春을부쳐내여님겨신던쏘이고저휴모  
簾침비최히를조우樓누의올리고저紅裳생을나의  
초고翠袖슈를半안만거티日일暮모脩슈竹숙의행  
가림도하도할샤다른히수이다여긴밤을고초안자靑  
淸燈등거론것티細針篋공篋후노하두고쌍에나님을  
보려독밧고비겨시니鵲앙衾금도차도찰샤이밤은언  
제설고호르도알두해호든도설흔날저근것싱각마라  
이시름넛자호나모음의미쳐이서생를髓슈의세려시  
나扁鵲작이열히오다이병을엇더호리어와내병이  
야이님의타시로다찰하리외어디여병부희되을리라

뜻나모가지마다간뒤후후안나다가향무린날애로님  
의웃시울무리라님이야날인줄모로시오내님조차려  
후노라

續 吳美이人안曲곡

리가논티가시본뜻도후터이교天현上생白의玉옥후  
경을엇디후야離니別별후고히다취져문날의활을보  
라가시논고어와비여이교이내스설드러보오내얼굴  
이거동이넘피양죽후가아논엇딘다날보시고네로다  
디기실시나도님을이디군쁘다천혀업서이리야코리  
야어주러이후뜻편더반기시논뜻비치비와엇더당글

신고누어상각하고너너안자혜여하니내몸의지운되  
외又티바하시너하느니라원망하여사름이라허물하  
랴설위플려혜니造造物물의타시로다글란상각아오  
리친일이이셔이다남을외셔이셔님의일을내알거니  
를又튼얼굴이원하실적엇날일고春春寒한샘고熱일  
은엇디하야더버시여秋秋日일冬冬天현은뒤라셔외  
섯는고飡飡우루飯飯朝도夕석외테와又티태신는가  
기나긴밤의잠은엇디자시는고녕다히消休息식을아  
무려나아샤하니오늘도거의로다닌일이나사름을가  
내고고돌리어다어드러로가젓말고잡거니밀거니늘

몬외히올나가니 구름은커니와 안개는무수일고 산  
川천이어둡거니 日日月월을엇디보며 咫尺척을모  
르거든 千천리나를보라 보랴출하리물마의가비길히  
나보랴하니 바람이야물결이야어동정된터이고 샹공  
은어디가고 빈비안벌렸는고 江江天현의 혼자서셔디  
논히롤구버보니 남다히消소息식이 더욱아득한터이  
고 茅모簷첨츠자의 밤등안도라오니 半반 燄벽 靑청  
燈등은늘위하야볼맛는고오르며누러여헤쓰며바자  
니니적근 力力 盡진하야 哭증을잠간드니 情정 誠誠  
이지극하야 望의 望을보나 玉옥 又은 月구리후반이나

아늘거세라 무음의어근말슴을쿠장슴자하너눈물이  
바라나니말슴인들어이하여情정을못다하야묵이조  
차며여하너오턴된鷄啼聲의증은엇디세듯턴고어  
와虛허事소로다이넘이어디간고결의너러안자窓창  
을열고바라보니어옛븐그림재발조출현이로다출하  
리시여디여落낙月월이나되야이셔넘겨신窓창안히  
번드시비최리라각시님돌이야쿠너와구준비나되쇼

석

聽聽。松翁江강歌가詞詞

江강頭頭두誰誰誰唱唱羨羨美人人詞詞소正正正是是是孤孤孤舟舟



췌月월落낙時時惆惆悵悵德德君君無無限無限意意의  
世世間間惟유有有女女며娘娘知知디

右우는東동岳岳악李니公公安안訥訥늘글이라

星星山山別別曲곡

엇던디날손이星星山山의의머물며여棲棲서霞霞하堂堂當當懸懸  
식影影영亭亭主主췌人인아내말듯소人인生生世世間間간  
의도흔일하건아논엇디흐江江山山을가디로구나히녀  
겨寂寂寞寞막山山中中음의들묘아니나시논고松松翁翁根근  
을다시슬고竹竹床床상의자리보아저근덧을나안자엇  
던고다시보니天天邊邊변의현논구름瑞瑞석石석을집을

사마나논드드노얀이 초쥬스인파엇터홀고滄창溪에  
흰물결이亭亭子조알되물러시니天현孫손雲운錦글  
을뒤라셔버혀버여조는듯떠리논듯헌스토헌스홀샤  
山산中중의冊책曆부업서四스時시를모르더니논아  
래헤린景경이철철이절로나나듯거니보거니일아다  
仙仙間간이라梅미窓창아적벗티香향氣기에잠을서  
니仙仙翁翁의히를일이꽃업도아니하다을밋陽양地  
디편의윗씨를써허두고미거니도도거니빗김의달화  
내니靑靑門문故고事스름이제도있다홀다손망鞋혜  
를외야신고竹筴杖양은홀터더니桃도花화핀시버길

히 芳 草 洲 秀 의 니 어 세 라 닷 북 근 明 鏡 中 洞 絶  
로 그 린 石 硯 屏 병 風 鳴 그 림 에 룬 버 들 사 마 西 河 하 로  
흐 씨 가 니 桃 洞 源 원 은 어 드 매 오 武 陵 洞 이 여 기 로 다  
南 風 풍 이 건 듯 부 러 綠 竹 陰 음 을 헤 터 버 니 鄗 絶 아 노  
피 쇼 리 노 어 드 러 셔 오 듯 던 고 羲 皇 황 버 개 우 히 뜻 잠  
을 열 뜻 씨 니 空 中 洞 洞 저 존 欄 난 干 간 물 우 히 셔 잇 고 야  
麻 衣 의 룬 니 의 초 고 葛 巾 건 을 기 우 쓰 고 구 브 락 비  
기 락 보 노 거 시 고 기 로 다 하 르 밤 비 셔 운 의 紅 虹 白 鶴  
년 이 섰 거 피 니 브 람 씨 업 시 셔 萬 山 산 이 향 기 로 다 瀛  
滄 溪 계 룬 마 조 보 와 太 太 懸 空 을 못 줌 노 太 太 乙 을 眞



江松齋

대로더더두니紅蓼白花白巖巖  
洲주어느이  
다나판타環한碧벽堂당龍龍의소히  
빛어리에다하세  
라淸淸江강綠綠草초邊변의요머기  
논히들이夕석  
陽양의어위계위短단笛笛을빛기  
부니물아래잠긴龍  
봉이좁씨야너러날듯너씨에나  
온鶴학이제기술더더  
두고半반空공의소소설듯蘇소  
仙仙赤적壁벽은秋추  
七칠月월이요타호더八팔月월  
十십五五오夜야를모다  
엇디과하논고織섬雲운이四  
人人捲권하고물결이채잔  
적의하늘의도둔돌이솔우  
히결려거른잡다가싸딘줄  
이謫덕仙선이헌수흔샤空공  
山산의싸힌넙흔朔악風

동이거두부러세구름거너리고눈조차모라오너天  
公공이호소로와조옥으로고졸지어萬만樹슈千천林  
림을서며곰벌세이고압여홀마리어獨독木목橋교  
빚넋더막더멘늘근중이어너덜로간닷말고山山翁  
옹의이富부貴귀를논드려헌스마오瓊경瑤요窟굴隱  
은世세계미를木木주리이실세라山山中중의벗이업서  
漢한紀기를씨하두고萬만古고人인物물을거스리혜  
여호너聖성賢현도만커니와豪호호傑걸도하도할샤하  
논삼기실체곳無무心심홀가마논엇디호時시運운이  
일락배락호얏논고모를일도하거니와애돌음도그지

업다箕子山산의늘근고불귀는엇디싯듯던고박소리  
핀테호고조장이마장롭다人인心심이늦곳특야보도  
록새롭거늘世世事스논구름이라머흐도머흔시고엇  
그제비존술이어도록니근누니잡거너밀거너늘크장  
거후로니口음의미친시롭져그나호러나다거문고시  
을인저風풍八입松송이야고야손인동초주人인인동  
다니저브려셔라長양空공의셧노鶴학이이플의眞眞  
仙선이라瑤요臺터月월下하의형혀아나만나신가손  
이셔초주人인드려볼오더그더권가호노라

將장進진酒주辭소

호수잔역새그려호수잔역새그려곳깃거筭산노코  
無무盡진無무盡진역새그려이몸주근後후면지계우  
히거적더퍼주리허리어가나流뉴蘇소寶보快양의萬  
만人인이우러네나어옥새속새덥가나무白백楊양수  
폐가기곳가면누른히회돌고눈비쿨근눈소오리브람  
불제취호수잔역자홀고호물며무덤우히진나비프람  
불제취우촌돌엇더리

過과松송江강墓묘

空공山산木목落낙雨우蕭소蕭소相상國국風풍流  
뉴此此太寂적寥寥立凋凋長惝惝一일杯비難난更更響進進



昔歲年目歌가곡즉수금朝五

右우노石석洲洲權권公公鞞鞞필클이라

아바님날나흐시고어마님날기루시니두분곳아거면  
이몸이사라시라하늘마툰은덕을어더마혀갑스오리  
형아아의야네술홀모져보와취손더타나판더양제조  
차마특손다호젓먹고필러나이셔닷모음을벽더마라  
님금과빅성과스이하늘과싸히로더버의셜운이롤다  
아로려흐시거든우린돌술진미나리틀혼차엇디머그  
리

어버이사라신제섬길일란다흐여라디나간취면애롭

다엇더하리평심어고터못흐일일이신인가호노라  
흐름들혜논화부부물삼기실샤이신제흐셔늘고주그  
면흐더간다어뒤셔망녕의셔시눈흐과려호노호

간나히가논길흐스나히에도드시스나히혜논길흐게  
집이최도드시제남진제계집아너어든일흐못다아오  
려

비아돌호경북더너어도록비환누너비아돌호호은모  
리면미출노다어너제이두칸비화어될거든보려노  
미은사름드라올호일호자스라사름이되어나셔올터  
웃못호면미쇼를갓갓갈의위밥먹이나다르랴

꿀목 쥐시거든 두손으로 바티라라나갈디게시거든 약  
대들고 조차리라 향음 주다 파호후에 외셔 가려호노라  
놈으로 삼긴둥의 벗又티유신호라 내의 원이 룬다닐오  
려호노 매라이 몸이 벗님 곳아니면 사 룬되미 쉬을가  
어와 더 족하야 밥업시 엇디호고어와 더아자바 옷업시  
엇디호고어 혼일다닐러스라 돌보고져호노라

네집상스 돌흔어 도록출호신다네설셔방은언제나마  
치누신다내개도업다커네와 돌보고져호노라

오늘도다 새거다호의에오가자스라내논다리며튼비  
논점의여주마을길히생바다가누에먹겨보자스라

비록 못나 버도놈의 오슬앗디 마라 비록 못먹어 도놈의  
밥을 비디 마라 혼적 못셔 시료 휘언 못터 벗기 어려우리  
상늑장커흐디 마라 용스글월흐디 마라 집배야므슴흐  
여노리원슈될줄엇디 나라하범을세오샤죄인노즐모  
로논다

이 고진덕늘그니 짐푸러나를주오나노점엇거너돌히  
라우거울가늘거도설웨라커든지물조차지실가

右우短단歌가十십六六六載지見현警경民민編편

강원도북성들아형태용스흐디 마라종씨밭씨논엇기  
예입거너와어뒤가토어들거시라흔킷할킷흐논다

남진죽표우는물두려지느리흔더젧아시쑈다하교  
지식은보채거든터놈아어니안흐로게집되라하노다  
광화문드리다라니병조상덕방의하르방다솟경의스  
을석덤티논소리그터뒤단적이되도다삼이론듯하여  
라

봉너산님게신뒤오경틴남은소리성널어구통디나릭  
창의들리너다강남의너려웃카연그립거든엇다리

손너를테은물이고기도곤마시이세초옥조분줄이괴  
터옥내분이라다만당님그린타스로서룩겨위하노라  
뉴령은언제사롱고진적의고서로다게함은과누러나

당디에 망성이라 두어라고 소 망성을 무려므음하리  
이바이 집사 롱아 이세간 엇다 살리 솟벼다 소 리고 족박  
귀다 업피야 함을 여기 울테대니 거든 누를 잇고 살리  
기울테대니 거니 소 나 족박 귀 업거니 소 나 비록 이세간  
판랑 홀안 정고 온 남 피기 웃피면 그를 잇고 살리라

므소 일일 우리라 십년 지이 너를 조차 네 홀일 업시 셔외  
다 마다 하느니 이 제야 절고 편 지어 전 송 호 디 엇더리

酒 類 問 答 並 答 並 下 三 首 詩

일이나 일우려 하 면 처 임 의 사 피 실 가 오 면 반 기 실 서 나  
도 조 차 든 니 터 니 진 실 로 위 다 웃 하 시 면 마 루 신 돌 아 니

랴

네말꽃터드러너업수연못살려너어흔일구존일별노  
흐야다벗거든이제야농피려흐여벗벗알고엇다리

일텡빛년산들괴야니초초흐가초초흐부심이무수일  
을흐랴흐야네잡아권흐는잔물덜억으려흐노다

에셔놀애를드러두세번안붓츠면은봉너산테일봉의  
고온님보련마노흐다가못흐노일을빌러무승흐리

이몸허러너여번들의씩오고져이물이우러티여한강  
여흘되다흐면그제야냉그린너병이헐헐법도잇너너  
너무옹버혀너여터들울빙글고져구안리당현의번드

시결려이셔고은님계신고더가비최여나보리라  
홍망이수업스니디방성이취최로다나모론디난일란  
목덕의붓터두고이도흔태평연화의홍잔호디엇터리  
신군앙꼬리적외내아총유찬으로상하번초와근정  
문밧기러니고은님옥곳튼양지눈의암암홍여라

남극노인성이식영덕의비최여서창히상현이슬권장  
뒤좁도록가디룩새비출내여그을뒤를모로다

뒤우히심근느티엇히나스란노고베디여난회초리저  
꼬리늘도록애그제야도흐잔자바다시현슈홀리라

청현구름밧겨놓히든학이러니인간이도터나르스으



라 너려온다 땅지치다 썬러디도록 너라 갈줄모르노다  
거문고대현을티니 무음이 다 녹더니 쥬현의우도올라  
막막토외온마리 싫기논전혀아니되니 별엇디호려노  
땅지치다디게야놀애를고터드러청련구름속애소소  
셔오룬마리의현코현출호세를다시보고말와라

새원원쥬되어별손님다내옵디가거니오거니인수도  
하도할샤안자셔보노라호니슈고로와호노라

새원원쥬되어되롱삿갓메오이고세우샤풍외일간득  
빛기드러홍노화벽빈쥬제의오명가명호노라

새원원쥬되어의비를고터맛고뉴뉴청산을벗사아더

뜻노라야히야벽데에손이라커든날나가다흐고려

양사왕가태부혜건대우읍고야놈머되근심물제혼자

앗다이셔긴한숨눈물도파커튼에에흐줄엇데오

심외산세비바회감도라휘도라드러오뉴월빛계죽만

살얼음지핀우히즌서리섯거티고자최눈디엇거늘보

앗는다님아님아온놈이온말을향여도님이짐작흐쇼

셔

내양주놈안못흐줄나도잠간알건아는연지도부러잇

고분셔도아니미니이러코피살가뜻은전혀아너덕노

라

나모도병이드네 덩즈라도쉬리업다호화히셔신제논  
오리가리다쉬터니넵디고가지첫근후노새도아니안  
논다

어와버힐시고낙낙영용버힐시고저근덧두던들동병  
지되리러니어즈버영당이기울거튼무서스로바치려  
노

재녀어성권롱집의술낙맛말어지듯고누은쇼말로박  
차언치노하지즐투고아히야네권롱겨시나<sub>고</sub>좌슈왓  
다흐여라

등셔당뵈옥비를십천안의고려보너롭고흰바춘어저

론 뜻은 다 마는 것 더 타 사물의 모양은 도색 변하는 요

어와 동냥 저물 더 리 향야 어 이 흥고 흥스 더 기운 집 의 의  
논도 하도 할 사 못 지 위고 자 들고 해스 다 가 말려 누 다  
풍파 이 알니 더 비 어 드 러 로 가 단 말고 구름 어 흥 거 든 처  
음의 날 술 잊 지 허 술 흥 비 두 산 분 비 노 모 다 조 심 흥 소 셔  
더 기 셋 는 더 소 나 모 길 ㅁ 의 설 줄 잊 디 저 근 덧 드 리 혀 더  
갈 형 의 셔 고 라 자 사 더 고 도 치 면 분 비 노 다 디 그 러 흥 다  
右開東別曲思美人曲續美人曲三篇即松江相國鄭  
文清公之所著也公詩詞清新警拔固膾炙人口而歌  
曲尤妙絕今古長篇短什無不感傳雖屈平之楚騷子

瞻之詞賦殆無以過之每聽其引喉高詠聲韻清楚意  
旨超忽不覺其飄飄乎如憑虛而御風羽化而登仙至  
其愛君憂國之誠則亦且藹然於辭語之表至使人感  
愴而興歎焉苟非出天忠義間世風流其孰能與於此  
噫以公耿介之性正直之行而適會黨議大興讒搆肆  
行上而得罪於君父下而見嫉於同朝流離竄謫幾死  
幸全而其所詬罵至身後彌甚昔子瞻之遭罹世禍亦  
可謂極矣然其愛君爲什猶能見賞於九重而公則並  
與此而終不能上徹抑何其不幸之甚歟清陰金文正  
公嘗論公始末而比之於左徒之忠此誠知言哉北關



余按關西之明年春鳳山宗人來河等來眎 松江先  
祖歌詞一冊此是余 先王考丈岩府君觀察關北時  
八刊者而此板最精於諸刻第刊行已久板木多毀破  
方欲得一件重刻而未果矣今幸得之心竊喜焉茲命  
剞劂氏鳩材八刊不日而工告訖自此將不至泯沒而  
傳之永久矣歲戊子仲春後孫監司案謹書

Handwritten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running vertically along the left margin.





